

도발자의 정체를 가리우려는 대결광대극

윤석열역적패당이 6.25전쟁 73년을 계기로 각종 광대극을 벌여놓고 반공화국대결기운을 고취하였다.

역적패당은 6월 25일 서울에서 《6.25전쟁기념식》이라는 것을 벌여놓고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안보를 지켰다.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쫓아냈다.

이보다 앞서 24일에는 남강릉도 출현에서 《기념행사》라는 것을 벌였으며 22일에는 《6.25출격조종사 초청행사》를, 23일에는 《함안경찰승전기념관》 준공놀음을 벌여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역적패당은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시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힘에 의한 평화》를 쫓아냈다.

역적패당이 6.25전쟁 73년을 계기로 이처럼 각종 광대극을 벌여놓고 반공화국대결기운을 부린 것은 저들의 침략적, 도발적정체를 가리우고 지난 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패를 《승전》으로 미화분식해보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이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이

전 조선을 병탄하고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리승만피도당을 사육하여 일으킨 침략전쟁이었다.

하지만 세인이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했던 조선전쟁에서 미국과 피의적패당은 비참한 참패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미국상전과 함께 공화국의 위대한 7.27전승신화를 뒤집고 저들의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켜보려고 가소롭기 그지없는 각종 광대극들을 벌여놓으며 대결광기

를 부러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만사 사람의 쓰디쓴 웃음을 자아내는 해괴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대참패를 당한 수치로 하여 가슴앓이를 하던 나머지 이제는 정신착란중에 걸려 갖가지 황당무계한 《기념행사》라는 것을 벌여놓고있는 역적패당의 광대야말로 실로 가소롭고 가려하기 그지없다.

역적패당이 제야부리 후백을 전도하며 오그랑수를 써도 패배자로서의 치욕스러운

오명을 벗을 수는 없다.

발버둥칠지언 칠수록 차례지는 수치가 더 커진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친치, 저능아들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역적패당이 지난 전쟁에서 당한 수치와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며 이 땅에 또 다시 전쟁의 불을 지르려 하고있지만 침략자, 도발자들이 가당치 않을 총참첩은 파멸의 무덤이 될 거기에 듣게 될 것이란 비참한 장송곡 뿐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파쇼의 란무장, 친악의 인간생지옥

남조선에서 회세의 파쇼악법인 《반공법》이 조작되었던 때로부터 62년이 지났다.

알려진 것처럼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의 자리를 강탈한 박정희역도는 1961년 7월 3일에 정치적반대파들과 인민들을 더욱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남조선을 파쇼독재가 살판치는 암흑천지로 만들기 위해 악명 높은 《보안법》보다 《법》의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된 파쇼악법인 《반공법》을 조작하였다.

《반공법》 1조, 2조에는 《보안법》 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반국가단체》의 활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

었다.

또한 《반공법》의 4조 1항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리롭게 하는 행위를 한자》를 《범죄》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고무》, 《동조》라는 개념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기타의 방법》이라는 표현의 내용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결코 결면 고결기에 결면 귀결이식 《법》이 되어 파쇼독당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처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와 같이 《반공법》은 남조선에

조작된 《반공》파쇼독재체제를 《법》적으로 담보하고 애국적민주력량을 탄압하는 극악무도한 악법이였다.

당시 남조선인민들이 《보안법》과 《반공법》을 가리켜 사소한 풍당, 취종의 발언조차도 《리치행위》, 《간첩행위》로 몰아 결질심판에 넘기는 최악의 《법》이라고 하여 《막걸리보안법》, 《막걸리반공법》이라고 규단, 조소하고 이 천대미문의 반인륜악법에 의해 얽매인 남조선사회를 저주하여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암흑사회라고 단죄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후 《반공법》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의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악되었으나 파쇼살인광 전두환역도의 의하여 파쇼악법의 절정을 이루는 새 《보안법》에 흡수개악되었다.

남조선에서 《반공법》이 조작되고 그것이 《보안법》에 흡수개악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력사의 흐름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야 할 회세의 악법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으로써 결코 결면 고결기에 결면 귀결이식 《법》이 되어 파쇼독당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처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와 같이 《반공법》은 남조선에

조각된 《반공》파쇼독재체제를 《법》적으로 담보하고 애국적민주력량을 탄압하는 극악무도한 악법이였다.

당시 남조선인민들이 《보안법》과 《반공법》을 가리켜 사소한 풍당, 취종의 발언조차도 《리치행위》, 《간첩행위》로 몰아 결질심판에 넘기는 최악의 《법》이라고 하여 《막걸리보안법》, 《막걸리반공법》이라고 규단, 조소하고 이 천대미문의 반인륜악법에 의해 얽매인 남조선사회를 저주하여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암흑사회라고 단죄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후 《반공법》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의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악되었으나 파쇼살인광 전두환역도의 의하여 파쇼악법의 절정을 이루는 새 《보안법》에 흡수개악되었다.

남조선에서 《반공법》이 조작되고 그것이 《보안법》에 흡수개악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력사의 흐름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야 할 회세의 악법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으로써 결코 결면 고결기에 결면 귀결이식 《법》이 되어 파쇼독당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처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와 같이 《반공법》은 남조선에

정세긴장을 부채질하는 무분별한 망언

최근 남조선의 《국방부》와 《환경부》들이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미군의 고고도요격미사일체제 《싸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라는 것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싸드》레이다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인체와 주변환경에 아무런 부정적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증》되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싸드》기지환경영향평가내용이 극히 형식적인것이고 조작된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고 한다.

특히 《싸드철폐성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싸드》레이다출력수치도 공개하지 않은 환경영향을 믿을 수 없

며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전자기파수치도 조작된것이라고 반발하고있다.

《싸드》의 전자기파 인체와 주변환경에 아무런 부정적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역적패당의 이번 《싸드》기지환경영향평가내용은 민심에 대한 과렴치한 기만행위이며 저들의 친미골중행태를 합리화하고 《싸드》기지의 정상운영으로 반공화국전쟁대결기도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추악한 망언이다.

미국이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공화국을 선제타격하는 것과 함께 저들의 세계지배 전략에 따라 전략적경쟁자인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을 제압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는 데 있다.

미국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광하고있는 남조선호전광들은 미국의 이러한 위협천만만 기도에 추종하여 《싸드》를 끌어들이으로써 남조선을 공화국을 침탈하기 위한 핵전초기지로,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의 타격과녁으로 만들었다.

주변나라들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싸드》배치책동에 갇힌 우려를 표시하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면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역적패당의 《싸드》기지운영책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긴장이 더욱 격화되고 남조선의 안보위기가 역시 한층 심화되게 될것이다.

현실은 조선반도와 주변정세악화의 주범은 다름아닌 미국과 그 하수인인 윤석열역적패당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황 금 속

최근 윤석열역도가 무지무능한 행태를 띠어 드러내보여 남조선 각계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다.

역도의 교육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 커다란 사회재물의 불을 일으키고있는 것이 대표적사례이다.

얼마전 역도는 대학입학능력을 측정하는 시험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배워주지 않는 난도높은 문제들을 시험문제로 내지 말아야 한다고 쫓아냈다.

역도의 이 발언은 발전하는 과학과 교육수준을 너무도 모르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저와 같은 무능, 저능아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무지스러운 발언이어서 수험생들과 부모들은 물론 각계층에서 거센 반발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윤석열의 무지가 교육분야까지 뻗었다》, 《일단 들어받고 보자는 윤석열식숙정운영이 또 사고를 쳤다》, 《지독한 무능과 무책임의 발로이다》, 《앞으로 또 어떤 혼란을 빚어낼지 걱정스럽다》, 《민심을 얻어보려고 굳은 머리를 짜보았지만 오히려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명청한자가 부지런하면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

기마련이다. 윤석열은 원래부터 변명과 거짓말. (남탕)이 체질화되어있다》라고 비난하며 개탄하고있다.

지어 보수세력내에서도 역도를 《양치기소년》에 비유하면서 《단체포적인 발상이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윤석열역도의 외교적무능으로 대외적고립과 경제파국이 심각해지고있다는 비난도 터져나오고있다.

윤석열역도는 집권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배치전략에 적극 추종했다. 특히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책동의 앞장에 서서 날뛰고있으며 이것은 하여 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야당들과 언론, 전문가들은 《스스로 신생전을 만드는 무능함에 너무 참담하다》, 《악화된 경제, 외교상황은 윤석열의 총체적무능, 무책임, 무대배이 부른 참극이다》, 《유류와 일본까지도 경제적실리를 차리고있는데 윤석열 (정부)만 반대로 가고 있다》, 《스스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현 (정권)의 실력이다》, 《미국이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보수세력들속에서도 《윤석열의 실존한 무지무능이 정치의 지옥, 철학과 력사적의 부재,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정치화 및 사유화를 초래하였다》, 《사회가 엉터리공조로 병들어가고있다》, 《윤석열이 변하지 않으면 (정권)이 위태로워질것이다》는 비난과 아울러 윤석열역도의 무지무능이 《정권》과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크게 확대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보수세력들속에서도 《윤석열의 실존한 무지무능이 정치의 지옥, 철학과 력사적의 부재,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정치화 및 사유화를 초래하였다》, 《사회가 엉터리공조로 병들어가고있다》, 《윤석열이 변하지 않으면 (정권)이 위태로워질것이다》는 비난과 아울러 윤석열역도의 무지무능이 《정권》과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크게 확대되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비난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것처럼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쏘리를 물고 산생된 외교참사, 날로 우심해지는 안보불안, 검찰을 수 없는 경제파국과 사회적혼란은 전적으로 역도의 무지무능과 무분별한 망언이 초래한 필연적제약이다.

불행과 고통, 재난의 환국인 역도의 퇴진을 요구하여 남조선 각계층이 일떠선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본사기자 김 광 혁

남조선 각계가 비난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것처럼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쏘리를 물고 산생된 외교참사, 날로 우심해지는 안보불안, 검찰을 수 없는 경제파국과 사회적혼란은 전적으로 역도의 무지무능과 무분별한 망언이 초래한 필연적제약이다.

불행과 고통, 재난의 환국인 역도의 퇴진을 요구하여 남조선 각계층이 일떠선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본사기자 김 광 혁

무지, 무능이 초래한 비난과 배격

당원 상전이 주구에게 하사한 《선물》

얼마전 남조선의 어느 인터넷신문에 미국무장관이 윤석열역도에게 주었다는 《선물》사진이 실렸다고 한다.

그 《선물》이라는 것이 뭔가 하니 개의 목사리와 가죽끈이다.

남조선항간에서는 미국의 《충견》인 윤석열역도에게 꼭 들어맞는 《선물》이라는 조롱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사실 역도가 《대통령》 감투를 쓰고 한것이란 친미골중뿐이다. 상전의 호호를 받고 악의 제국을 찾아가서는

조선반도에 핵전쟁을 몰아오는 《확장억제력》을 구걸하고 역대의 대미투자를 섬겨 바쳤으며 미국의 세계패권정착실현의 돌격대역할을 자청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국회에서 서투른 영어를 써벌이며 더없는 친미노복임을 증명하는가 하면 백리관의 먹자판에서는 《아메리칸파이》라는 노래를 《류창》하게 불러대어 상전의 박수까지 받았다.

그뿐인가. 역도는 미국의 지령에 따라 천년속적인 섬나라것들과 관계개선의 명

목말에 입을 맞추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하기에 내외가 역도를 가리켜 미국의 삼살개라고 조소하고 규탄하고있는 것이다. 아마 미국상전도 자기의 바지가래이를 감들며 따르는 윤석열역도를 그렇게 여기고 있을것이다.

그래서 역도에게 개목사리와 가죽끈을 《선물》로 준 것이다.

역도가 받은 개목사리와 가죽끈, 그것은 남조선력사에 오 그 하나의 비화로 기록될것이다.

배 영 일

《우리의 삶과 생존, 자존심을 지켜내자!》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 강력히 전개—

지난 3일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대통령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권》퇴진을 위한 2주일간의 총파업투쟁에 들어간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민주로총》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노동자탄압과 민생, 민주, 평화파괴에 날뛰고있다. 120만명의 조합원이 단결하여 윤석열《정권》을 몰아내고 노동자중심의 《민주주의》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총파업투쟁이 윤석열퇴진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로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로조탄압중단과 《노동조합법》개정,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 해양투기중단, 최저임금인상과 공공요금인상철폐, 공공의료화대, 노동시간단축, 언론 및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이면 투쟁의 핵심과제로 제기하였다.

《민주로총》지도부가 총파업을 선포한지 몇시간만에 《민주로총》산하 《택배

로조》조합원 1 500여명과 《서비스런맹》조합원 2 500여명은 서울에서 각각 《전국택배노동자대회》와 《서비스런맹 특수고용노동자사전과업대회》를 열고 시내의 주요도로들에서 행진을 벌이는 것으로 총파업투쟁의 서막을 열었다.

뒤이어 부산, 울산, 청주를 비롯한 각 지역들에서도 《민주로총》산하 로조들은 총파업결의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징의식과 모라찌를집단시위, 대규모거리행진, 구호선창 등의 다양한 투쟁을 벌이면서 기세를 올렸다.

한편 진보운동단체들은 기자회견, 성명 등을 통해 제벌들과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굴욕적인 친미, 친일정책으로 민족의 존엄과 리의를 짓밟는 윤석열역적패당을 심판하기 위한 《민주로총》의 총파업투쟁을 지지성원하였다.

본사기자



한 것거리이고 체면도 수치도 모르는 천하에 둘도 없는 사대매국노의 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역도가 해외행각에서 각종 회담을 벌여놓고 저들의 대결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공화국압박공조를 실현해보려고 구질스럽게 늘어댄것은 불치의 병인 반공화국공조구질병이 또다시 발작한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반공화국압살을 구질하는 쪽박의 교로 불가복의 통치위기, 안보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대결미치광이다. 회세의 역적의 가소로운 살구명창기로서 제명을 다 산 번역의 가려한 처지만을 보여 줄뿐이다.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로 얻을것은 심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

이것은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을 생존방식으로, 집권유지의 만능치방으로 삼다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 력대 남조선위정자들의 추악한 행적이 보여주는 교훈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

불치의 구질병

